

# 빛가람 '스마트에너지'로 제2의 도약 기대

## 노무현 정부 추진 혁신도시

##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높아

## 전국 10곳 담당자들 워크숍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광주·전남 공동 빛가람 혁신도시의 '제2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기에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

특히 최근 전남도 등이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을 빛가람도시 지역발전 선도과제로 내놔 정부의 실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지역발전방안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

고 10개 지자체가 혁신도시 선도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혁신도시 발전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사업비 4300억원(국비 1720억원, 지방비 380억원, 민자 22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을 지역발전 선도과제로 발표했다.

스마트에너지 시티는 제로에너지빌딩,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물인터넷기술 등이 생활 전반에 도입된 미래도시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대거 이주해 온 빛가람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미래전략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을 도시에 적용해 신성장 첨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기관 20곳에 제로에너지 빌딩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 만들게 된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선도시구를 조성하고, 센서산업특화단지과 융합지원센터도 설치하게 된다.

전기차 선도시구 모델도 개발된다. 전기차 선도시구 지정 및 도시 인프라 모델을 개발하고 충전스테이션을 설치하며 전기차 시범마을도 조성하게 된다.

앞서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 이전기관은 지난해 4월~지난 2월 40개 과제가 포함된 지역발전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에너지(9개), 정보통신(4), 농생명(5), 문화예술(3) 등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분야를 나눠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에너지 분야는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벨트 조성,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50개) 조성, 광주연구개발특구 확대, 에너지신기술 실증 센터 구축 등이다.

또 정보통신 분야는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실감미디어센터 활용 체험형 가상훈련 센터 등이며 농생명 분야는 청다오 물류센터 광주·전남 마케팅 협력사업, 국제농업박람회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시설 구축 등이다.

문화예술 분야도 실감기술 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편 전북은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선도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제3의 금융허브를 꿈꾸는 전북의 미래 비전과 들어맞는 것으로 완공된 혁신도시의 성장에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해외 안 가도 '클릭'으로 수출 길 연다

## 콘텐츠진흥원 '웰콘' 개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이 운영하는 기업맞춤형 수출정보시스템 '웰콘(WelCon)'이 국내 콘텐츠기업을 위한 수출·마케팅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한콘진은 기존 '웰콘'(http://welcon.kocca.kr) 시스템에 비즈매칭 및 온라인 컨설팅 기능을 더한 신규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콘진은 지난해 4월 공동으로 웰콘을 구축, 그동안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 서비스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정보제공 기능에 한정됐던 웰콘의 기존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콘텐츠 수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비즈매칭 기능을 대폭 확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웰콘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의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기업을 돕기 위한 수

출·마케팅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중국 전문 법률·회계·관세·수출마케팅 분야 등 콘텐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한다. 기존 129명으로 구성됐던 전문가 자문단을 240명까지 늘리고 이를 통해 대(對)중국 사업 피해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게 한콘진의 방침이다.

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외시장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손질했다.

플랫폼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한편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한콘진이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와 유관기관이 생산하는 콘텐츠 관련 해외시장 진출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락균 한콘진 글로벌비즈니스지원본부장은 "국제 행사나 마켓에 참가하지 않아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기업은 언제라도 비즈매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비즈매칭 포털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콘텐츠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마케팅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농산물 공동구매 어렵지 않아요" ...aT, 직거래 시스템 강화

## 교회 전용 브랜드·산지페어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11일 종교 단체 대상 대용량 식자재 공동 브랜드 '오늘의 양식'을 런칭하고, '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수산물 판매를 늘리고 위해 식자재 분야에서 직거래를 본격화했다.

aT는 180만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바이블25앱'에 몰인몰(Mall in Mall)형태의 식자재 쇼핑물을 정식으로 오픈한다.

공동 브랜드 '오늘의 양식'은 도시 지역의 교회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발된 브랜드로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기존거래 대비 10~20% 인하된 가격으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aT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포스몰의 산지 식재료 상품 중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상품에만 '오늘의 양식'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용량 식자재 공동 브랜드를 사용한 첫 번째 상품은 '함께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쌀'로 공동브랜드를 적용해 디자인, 포장 등을 별도로 구성했다. 서울·경기도 지역과 부산·경상남도 지역에 한해 직 배송되며, 판매가격은 현금결제 조건으로 4kg 9200원(40개 이상 구매 시), 10kg 1만7900원(30개 이상), 20kg 3만3800원(20개 이상)이고, 계약재배를 한 '새일미' 단일 품종 GAP관리시설에서 가공·생산한 고 품질 쌀로 참가가 많아 밥맛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바이블25앱에 신규 오픈한 몰인몰에서는 '오늘의 양식' 브랜드 상품뿐만 아니라 포스몰의 우수 식재료 20여 품목으로 구성



aT는 김해시를 시작으로 올해 8번의 '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경북 의성군 페어. <aT 제공>

된 40개 상품도 만나 볼 수 있으며, 정식 오픈 기념으로 돼지고기 목살, 참외, 쌀 등을 10~40% 할인 판매하고 신규가입 할인쿠폰(1만원)을 제공한다.

aT 황형연 사이버거래소장은 "농식품 온라인 구매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농식품 안전과 품질 문제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믿을 수 있는 공동 브랜드 개발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쇼핑물 개발을 통해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aT는 경남 김해시를 시작으로 2017년도 '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는 국내 외식업체 바이어를 식재료 산지(産地)로 초청하여 식재료 생산업체와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행사다.

외식업체에는 좋은 품질의 국산 식재료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식재료 생산업체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주면서 외식

과 농업 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

aT는 올해 총 8번의 '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개최할 계획이며, 첫 행사는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김해시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총 8회의 행사 중 한 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해 '(가칭)세프와 함께 하는 국산식재료의 재발견' 행사로 기획하고, 국산 농수산물 중에 맛과 향기, 단가 등이 우수하나 외식 식재료로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품목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행복한 일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균)는 11일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에서 독거노인 노후주택과 마을회관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KRC희망나누미 마중물봉사단' 활동을 했다.

'마중물 봉사단'은 2006년 전남지역본부 기전기술부 기계, 전기, 건축 등 전문기술 인력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전남 농어촌지역 독거노인 노후 주택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전기시설 점검·수리 및 전기설비, 전등 등을 교체하

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시설 5곳과 41개 마을의 200여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해 왔다.

윤석균 본부장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비해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휴양을 겸하며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